

<제13회 화재 및 자연재해 예방 체험수기 현상공모 **장려상** 수상작>

화마는 울지 않는다

글 박재근경기



자연은 소중하다. 이 자연을 간단한 경제 논리로 설명하면, 산을 모두 깎아 아파트를 지어서 국민의 주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유는 자연이 우리 생명의 마지막 보루인 까닭이다.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그것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세계 각 나라는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 정책으로 그린벨트 같은 개발 제한구역을 설정해 자연을 보호한다. 그만큼 자연과 인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특히, 나는 우리나라 산야를 카메라에 담은 사진작가인 까닭에 자연을 거의 교회와 사찰처럼 신성시한다. 말하자면 교회와 사찰은 인간이 필요에 따라 만든 인위적인 정화 장치로, 자연은 신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 준 고귀한 청정지역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늘 자연을 애지중지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곁으로 다가가려 애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찍는 대가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2005년 4월 4일, 나는 오전에 배낭과 카메라를 메고 서울을 출발해 강원도 낙산사 사진 촬영 길에 올랐다. 도중에 여기저기 기웃거

리며 사진을 찍다가 땅거미가 내려앉자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사교리에 위치한 산으로 올랐다. 언젠가 필름이 부족해 찍지 못한 풍경을 아침 동틀 무렵에 로우 앵글로 촬영하고 낙산사 쪽으로 이동할 생각이었다.

나는 산 정상에 텐트를 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어떤 소음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비몽사몽간에 고개를 내밀어 밖을 내다보았다. 놀랍게도 산 아래 쪽에서 발생한 불이 타닥타닥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정상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산불의 속도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 엄청나게 빨랐다. 기겁한 나는 카메라만 챙겨 줄행랑을 치기 시작했다. 줄행랑은 비단 나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었다. 내 주위로 정체불명의 물체들이 휙휙 지나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정체불명의 물체는 산짐승들이었다. 그 중 고라니로 추정되는 산짐승은 나와 부딪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달아나기도 했다. 칠혹 같은 어둠 속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현장을 탈출하면서 도주로를 체크해 보았다. 현재는 산불이 정상을 향해 덮쳐 오는 상황이므로 뒷산으로 피신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산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 따라서



산불을 피하려면 우선 민가로 내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옆길로 빠져 민가로 향했다. 내 생각은 주효했다.

자정쯤 나는 가까스로 민가로 내려왔다. 산 아래에서는 군·관·민이 동원되어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야간인데다 워낙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 작업은 손을 놓고 있었다. 당시 상황으로는 진화 작업보다 대비가 더 급했다. 도로 쪽에서 올라다본 산불은 위력이 대단했다. 산불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그 열기가 얼굴에 느껴질 정도로 맹렬했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카메라로 화재 현장을 찍기 시작했다.

아침이 밝자 본격적으로 군·관·민이 힘을 합쳐 진화 작업에 나섰다. 그런데 바람이 문제였다. 애써 진화 작업을 한 자리에서 바람으로 말미암아 작은 불씨가 발화해 다시 타올랐다. 나는 그때 불이 나뭇가지로 옮겨서 번지기도 하지만, 공중으로 날아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실제로 눈앞에서 불덩이가 바람을 타고 건너편 산으로 옮겨 붙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마치 산불과 인간의 숨바꼭질 같았다. 그 거듭된 숨바꼭질로 사람들은 맥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작업자들의 체력이 소진되어 절망적이었다.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소방 당국이었다. 하지만 주위에 소화전이 없어 진화 작업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때 소방 헬기가 나타났다. 소방 헬기의 활약은 대단했다. 장대처럼 치솟던 불길에 소방 헬기의 물 폭탄을 맞고 맹렬한 기세가 차츰차츰 꺾였다.

다행히 사교리는 불길이 완전히 잡혀, 나는 간밤에 텐트를 쳤던 곳을 찾았다. 불에 탄 텐트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그것을 보자 소름이 돋았다. 주위를 휘둘러본 나는 새까맣게 변한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 그 울창한 나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사라지고 황량한 폐허로 변해 있었다. 곳곳에는 화재가 휩쓸고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는 고라니와 산토끼, 너구리, 오소리,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새들의 사체도 보였다.

화재 전문가는 당시 양양 산불 때 한식이 겹쳐 있었고, 최초 산불 발화 지점이 도로 가까이에서 시작되어 실화라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누군가의 담뱃불이나 실수가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는 뜻이다. 그런 담뱃불이나 실수의 예는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 도시에서도 간혹 고층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풍초를 아래로 던져 화재가 발생하거나, 실수로 불이 당겨진 담배풍초를 쓰레기통에 버려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우리는 강원도 양양 산불의 교훈으로 화재예방교육을 좀더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때 화재예방교육은 체계적으로 하되, 체험 위주로 실시해야 한다.

이 화재예방교육은 매우 효과적이다. 일례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결핵과 A형 간염, 볼거리 등 후진국형 질병이 거의 사라진 것은 귀가 닳도록 실시한 위생 교육 덕분이다. 마찬가지로 화재 예방도 교육을 통해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시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말할 것도 없이, 화재는 수해보다도 무섭다. 수해는 단기간에 복구가 가능하지만, 화재는 불가능하다. 또한 화재는 모든 것을 초토화하는 속성이 있어 재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예컨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동 단계에서 다수의 소방 헬기를 동원해 진압한다든가, 곳곳에 저수지 같은 소화전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그 외에 입산자들의 화기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현재 발생하는 산불은 실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입산자들은 불편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소중한 자연과 재산, 인명을 게걸스러운 화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㉞